

# 곡성군 효도택시 이용객 15만명 돌파

### 교통 소외지역 34개 마을 운영...이용률 97% 교통복지 효과 노릇...청소년 '에듀택시'도 호평

곡성군이 운영하는 효도택시가 5년 만에 이용객수 15만명을 돌파했다. 효도택시가 교통복지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도택시를 도입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조치였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경우 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곡성은 면소재지까지는 100원, 3개 주요 거점 생활권까지는 12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곡성군에 등록된 전체 택시 61대가 효도택시로 활약 중이며, 34개 마을을 오가고 있다.

반응은 뜨겁다. 지난 5년 간 배부한 이용권은 7만8986장, 사용된 것은 7만6269장으로 97%의 이용률이다. 탑승객수는 15만532명에 이른다. 다른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권들이 90%를 넘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이용률이다. 분실사

레 등을 감안하면 100%에 가까운 이용률이다.

이용이 자유롭다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공공 측면에서도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기존에는 한 번 외출할 것을 효도택시 덕에 2-3번 외출하게 되면서 전통시장·상가·병원 등 방문 횟수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특히 2016년 도입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교통복지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거리에 따라 차등적인 버스요금이 부과되던 것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통일하면서 전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곡성군은 이달 효도택시 이용 확대에 관한 주민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확대가 필요한 마을과 인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조례를 개정해 내년 부터 더 많은 주민에게 효도택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에듀택시까지 도입해 효도택시, 단일요금 버스, 에듀택시로 이어지는 농촌형 교통복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곡성 효도택시가 운영 5년만에 이용객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교통복지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에듀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른 시간에 버스가 끊기는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택시를 지원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나해부터 교육지원청과 시범 운영 중이고, 올해 이용대상과 방법 등을 검토해 운영을 결정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에듀택시 도입으로 청소년들

의 방과후 활동과 야간 자율학습 등에 시간적인 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효도택시가 촉발한 교통복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구례 산수유꽃축제 전면 취소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따라 결정 마스크 9만2000개 주민 배포...마을회관 폐쇄

구례군은 24일 '제21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취소했다.

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취소'를 의결했다.

군은 지난 17일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조남훈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는 비록 취소됐지만 산수유 꽃과 벚꽃 개화 시기에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다수의 관광객이 밀집할 수 있는 야시장과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1월 24일부터 마스크 12만7000개를 확보해 9만2000개를 공공기관과 주민들에게 배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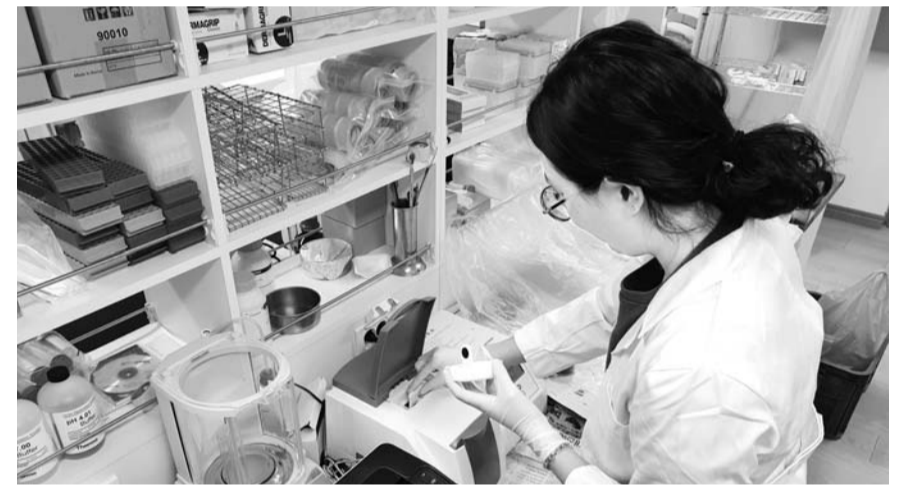
다. 손 소독제 5900개와 살균제 236통을 확보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는 3대를 구입하여 공영버스터미널 등에서 운영 중이다. 또 군은 지난 7일 공공기관과 주민들에게 각종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21일에는 관내 종교단체 116곳에 종교행사와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24일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폐쇄하고 주민들이 참석하는 회의·행사·교육도 무기한 연기했다.

방역용 수동분사기 171개를 마을에 배부하여 자체적인 소독도 독려한다. 25일부터는 수영장·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모든 체육시설도 휴관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곡성 흑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추진

### 부직포 터널 이용 조기재배 수확...농가소득 향상

곡성군이 흑찰옥수수(사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곡성의 명물 토산에 이어 '흑찰옥수수 명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명물인 흑찰옥수수를 부직포 터널을 이용해 조기재배와 수확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 맞춤형 잘옥수수 생산단지를 조성, 곡성농협·옥과농협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행된다.

곡성군은 3월 중순 3ha 면적에 흑찰옥수수를 정식해 6월 말쯤 흑찰옥수수를 출하하고, 4월 초부터는 노지재배를 실시해 7월 중순쯤 제철맞은 흑찰옥수수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에서 생산되는 흑찰옥수수는 고소한 맛과 쫄쫄한 식감으로 지역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곡성은 주야간 온도차가 큰 지리산 자락의 특징을 이용한 과일, 잘옥수수 등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과 지역농협, 생산 농가 단체와의 협력으로 흑찰옥수수 명품화가 착각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고흥경찰, 생활폭력범죄 100일 특별단속

5월 26일까지 전담반 구성

고흥경찰서는 지난 21일 생활폭력범죄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폭력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담반은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생활안전(예방·홍보), 청문(피해자 보호), 정보(유관단체 협력) 기능 계장급을 팀원으로 지정·운영한다.

최근 5년간 고흥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취폭력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주거침입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인구 고흥경찰서장은 "서민 대상 생활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정보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찰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생활폭력범죄에 대처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구례군, 행안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구례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분야를 평가했다.

구례군은 '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 '침

목의 살인자 C형 간염 퇴치 선도사례'로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의 권익을 높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혁신행정을 펼치겠다"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활발한 운영과 생활SOC 사업의 확충, SNS 등을 이용한 지역 소통을 통해 구례군민의 혁신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퇴비 잘 됐는지 검사 받으세요"

보성군, 부숙도검사 무료 지원

보성군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 및 사전 검사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축종별 배출시설 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보성지역 축산농가는 총 478농가다. 이중 컨설팅을 신청한 농가는 421농가로 약 88.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70농가에 대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다음달 24일까지 전체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기관 및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법률 시행 전까지 농가별 현장 컨설팅 및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성=김용복 기자 kyb@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